참고 자료

지휘법

단원명	1. 마음을 열며	교과서	10~11쪽
제재명	새싹들이다	지도서	48~49쪽

▶ 지휘법

1. 지휘와 지휘자

지휘란 합창 또는 관현악에서 많은 사람의 노래나 연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앞에서 이끄는 일을 말하며, 주로 손이나 몸동작으로 지시한다. 지휘자는 연주의 시작이나 리듬을 통일할 뿐만 아니라 셈여림, 빠르기, 프레이징 등을 비롯한 음악적 표현에 필요한 모든 해석을 재창조하여 연주자에게 지시한다.

2. 지휘의 기본 자세

- 양발을 적당한 간격으로 벌리고 한쪽 발을 약간 앞쪽으로 향하게 하여 체중을 발끝에 싣는다.
- 가슴을 펴고, 팔은 적당히 뻗어 자세를 취한다.
-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모아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의 손끝을 붙인다.
- 지휘봉을 사용한다면 그 끝이 수평보다 약간 아래쪽을 가리키도록 위치한다.

3. 양손의 역할

- 오른손: 주로 빠르기와 리듬을 지시한다.
- 왼손: 주로 큐(cue) 사인과 셈여림, 악상 등 음악적 표현을 지시한다.

4. 지휘 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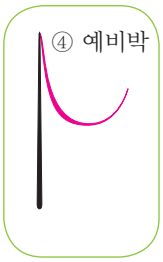
지휘를 연습할 때는 메트로놈 박자에 맞추어 박자별 지휘 도형을 그리며 연습하는 것이 좋으며, 물속에 손이 있다고 생각하고 손가락을 악수하는 느낌으로 모아 물의 흐름을 느끼며 지휘한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다. 팔꿈치는 항상 45도 정도로 벌리는 것이 좋다.

① 비팅(Beating) 연습: 박자 젓기 전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연습이다. 뚜렷한 비팅은 연주자가 정확한 박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공이 땅에서 튕겨 오르는 듯한 느낌으로 손목을 아래위로 움직여 하나의 점을 찍는 연습을 한다. 또한 첫 박은 반드시 내려치기로 해야 함을 인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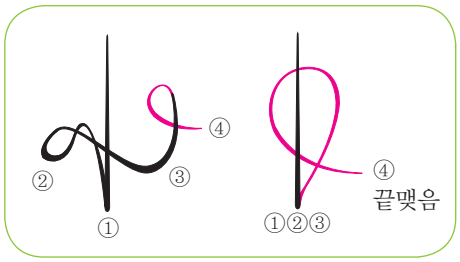
② 양손 분리 연습: 지휘에서는 양손의 역할이 다르므로 분리하여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오른손은 기본박을 젓고, 왼손은 상하좌우로 움직인다.
- 오른손으로 $\frac{4}{4}$박자 지휘를 하면서 왼손으로는 첫째 박, 둘째 박 등 각 박에 큐를 준다.

③ 시작과 끝맺음 연습: 지휘를 시작할 때는 박자에 맞는 지휘 도형에서 제일 마지막 박이 예비박이며, 못갖춘마디의 경우 시작음의 그전 박이 된다. 지휘를 끝맺음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끝마디의 박을 온전히 채우지 않고 끝날 경우 끝나는 박에서 맺음을 하고, 끝마디의 박이 온전하게 채워져 끝날 경우 박자의 지휘 도형만큼 박자를 젓고 한 박을 더해 맺음을 한다.

〈$\frac{4}{4}$박자의 경우〉



▲ 시작 부분



▲ 끝맺음 부분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편집부, "파퓰러음악용어사전&클래식음악용어사전", 삼호뮤직, 2002.)

참고 자료

코다이 손 기호

단원명	1. 마음을 열며	교과서	12~13쪽
제재명	계이름과 음이름	지도서	50~51쪽

▶ 손 기호(Hand Signs)

헝가리 작곡가이자 음악 교육자인 졸탄 코다이(Kodaly, Zoltan / 1882~1967)는 '모든 어린이는 음악을 읽고, 쓰고,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 아래 악보 읽기와 기보 능력을 강조하였다. 특히 모든 사람이 모국어를 배우듯이 자국의 민요를 잘 알고 체계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교수법 중 손 기호는 계이름 읽기를 손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계이름과 음의 높이를 동시에 표시하고 가락을 쉽게 읽을 수 있게 하며 가락을 공간 속에서 표현한다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그는 가락을 지도할 때 손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음정에 대한 감각을 기르고, 계이름으로 부르는 능력과 내청 능력을 동시에 기르고자 하였다. '가온 도'를 허리 높이에서 시작하여 점차 손의 위치를 높여서 한 옥타브 '위의 도'를 이마 위쪽까지 올리며 음의 높낮이를 나타낸다.

손 기호의 방식	
	도 (do) 주먹을 가볍게 쥐고 가슴 높이로 올려 옆으로 향하게 한다.
	레 (re) 손바닥을 펴서 위로 비스듬히 향하게 한다.
	미 (mi) '레'의 손끝 높이에서 옆으로 평행이 되게 한다.
	파 (fa) 주먹을 쥐고 엄지를 아래로 향하게 한다.
	솔 (sol) '파'보다 위쪽에서 손가락을 모두 붙여 손등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들어 보인다.
	라 (la) 손을 구부려서 산 모양을 만든다.
	시 (si) 집게손가락을 약간 비스듬히 위로 향하게 한다.
	높은 도 (do) 주먹을 가볍게 쥐고 이마 위로 올려 옆으로 향하게 한다.

출처 조홍기, "코다이 음악 교육", 세광음악출판사, 2004, 28~31쪽, 74쪽.

참고 자료

세시 풍속과 떡

단원명	1. 마음을 열며	교과서	16~17쪽
제재명	떡 노래	지도서	54~55쪽

세시 풍속에 먹는 떡의 종류와 유래

떡은 우리의 식생활을 비롯하여 세시 풍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시 풍속에 먹는 떡의 종류와 유래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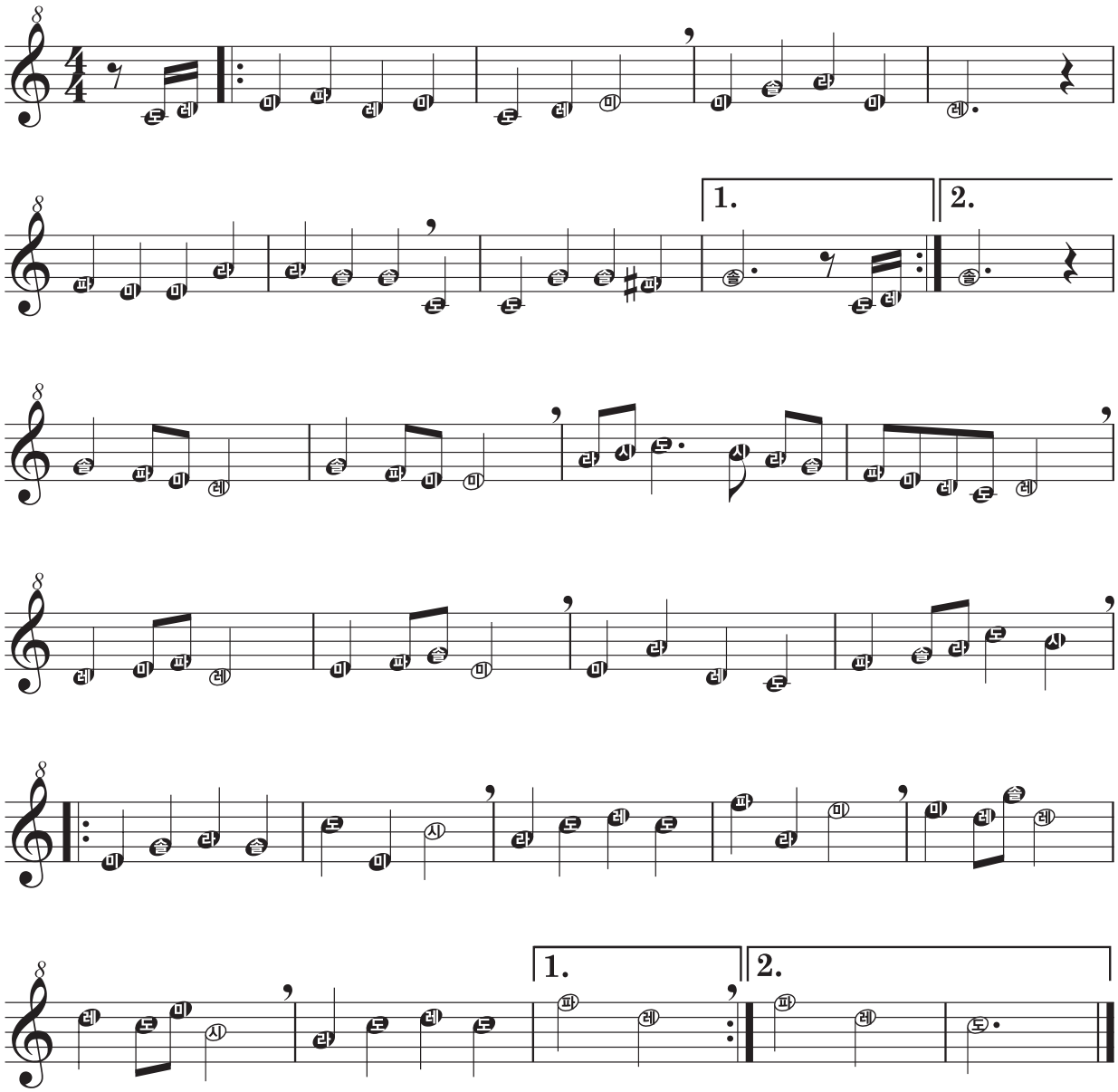
명절	종류	세시 풍속
설날 (음력 1월 1일)	 ▲ 떡국	설날에는 가래떡을 만들어 떡국을 끓여 먹는다. 설날에 떡국을 끓이는 풍습은 흰색 음식으로 새해를 시작함으로써 천지만물의 새로운 탄생을 의미한다. 또한 떡국을 먹는 것은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상징이기도 하다. 떡을 길게 뽑는 것에는 새해에 재물이 풍족하기를 바라는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다.
정월 대보름 (음력 1월 15일)	 ▲ 약식	정월 대보름에는 물에 불린 찹쌀을 시루에 찐 뒤에 꿀, 간장, 밤, 대추, 잣, 계피, 참기름 등을 넣어서 시루에 찐 약식을 즐겼다. '약(藥)'이란 병이나 상처를 고치는 데 복용하거나 바르는 물품을 일컫는 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귀한 것에 흔히 약(藥)자를 많이 써 왔다. 따라서 약식은 '귀한 밥'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월 삼짇날 (음력 3월 3일)	 ▲ 진달래화전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삼월 삼짇날에는 진달래꽃이 만발한 산언덕에 나가 봄을 즐기는 풍습이 있었다. 남정네들은 편을 나누어 활쏘기 대회를 하고, 아낙네들은 진달래 꽃잎을 따서 찹쌀가루에 반죽하여 기름을 둘러 화전을 부쳐 먹었다.
단오 (음력 5월 5일)	 ▲ 수리취떡	단오에는 수리취 잎을 뜯어다가 절구에 넣고 잘 찧어서 멥쌀가루에 훌훌 섞어 쪄서 수리취떡을 먹는다. 이날에는 수레바퀴 모양의 떡살로 문양을 찍는데, 이것을 '차륜병(車輪餠)'이라고도 한다. '수레바퀴처럼 모나지 않고 잘 굴러가라'에는 우리 조상들의 작고 소박한 바람이 담겨 있다.
추석 (음력 8월 15일)	 ▲ 송편	추석에는 햅쌀로 만든 송편을 만들어 먹는다. 송편을 정성껏 빚어 시루에 찌는데, 이때 켜켜이 솔잎을 넣어 찌면 송편에 솔 향이 자욱하게 배어든다. 은은한 향기와 함께 쫄깃쫄깃한 떡 맛과 다양한 소의 맛이 한데 어우러져 그 맛이 일품이다.
동지 (양력 12월 22일 무렵)	 ▲ 팥죽	낮이 짧고 밤의 길이가 일 년 중 가장 긴 동짓날에는 팥죽을 쑤어 먹는다. 팥죽에 찹쌀 경단을 새알심만 한 크기로 빚어 넣어 나이 수대로 먹음으로써 한 해의 액막이를 했다.

출처 윤숙자, "2004년 01월 국회보 중 '떡과 명절'", 2004, 109쪽.

리코더 높은음 연습곡

단원명	1. 마음을 열며	교과서	18~19쪽
제재명	리코더 높은음 운지법	지도서	56~57쪽

▶ 비엔나 음악학원(영화 "호로비츠를 위하여" OST 중)

보통 빠르게 이병우 작곡

참고 자료

‘산아지타령’과 ‘진도 아리랑’

단원명	1. 마음을 열며	교과서	20~21쪽
제재명	산아지타령	지도서	58~5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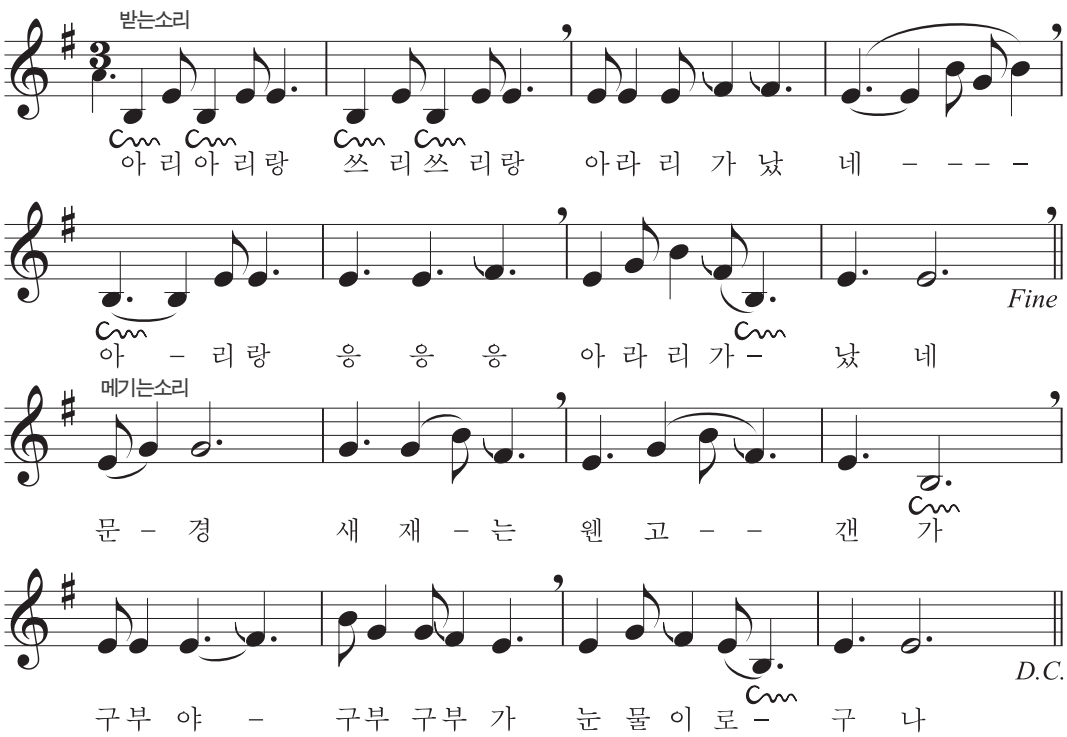
1. 산아지타령

전라남도에 전승되는 민요로, 받는소리에 ‘산아지로구나’라는 노랫말이 있기 때문에 ‘산아지타령’이라고 부르며, 현지 주민들은 ‘에야디야’라는 제목으로 부르고 있다. 장단은 세마치장단 또는 중모리장단에 어울린다. 음계는 육자배기토리로 되어 있어서 시김새의 기능이 살아 있지만, 노래의 속도가 빨라 시김새가 많지 않은 편이다. 메기고 받는 형식이지만 메기는 사람이 일정치 않고 윤창 형식으로 돌아가면서 메긴다. 놀이요로 부를 경우에는 받는소리를 생략하고 메기는소리만으로 노래를 연결하기도 한다. 받는소리는 두 장단이고 메기는소리 역시 대부분 두 장단의 길이지만 간혹 노랫말의 길이와 내용에 따라 더 길게 확대하기도 한다.

출처 국립국악원 누리집>국악사전

2. 진도 아리랑 악보

‘산아지타령’의 노랫말 ‘산아지로구나’ 부분은 ‘남도 아리랑’의 받는소리이다. ‘남도 아리랑’은 ‘진도 아리랑’의 전신에 해당하는 악곡이므로 ‘진도 아리랑’과 ‘산아지타령’의 받는소리가 같은 가락이다.

세마치장단 남도(전라도 민요) | 성창순 창

출처 국립국악원 편, “향토 민요 이렇게 가르쳐 보세요,” 민속원, 2000, 276쪽.

참고 자료

판소리 교수법

단원명	1. 마음을 열며	교과서	22~23쪽
제재명	"흥보가" 중 '비단타령'	지도서	60~61쪽

▶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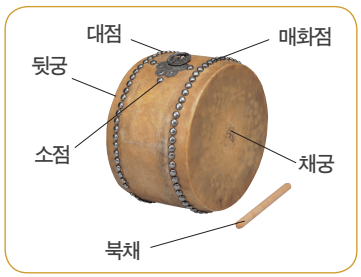
소리는 판소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로, 선율뿐 아니라 악곡의 장단과 내용 전달을 위한 사설 등을 함께 지도한다.

1. 장단 지도

[중중모리장단]	(>) ⓘ		|	◯	|	|	◯	◯	(>) |	◯		◯
[구음]	덩		덕	쿵	덕	덕	쿵	쿵	덕	쿵		쿵
[소리북]	뒷궁 채궁		소궁	뒷궁	소점	소점	뒷궁	뒷궁	대점	뒷궁		뒷궁

구음	기호	연주법
덩	ⓘ	손으로 뒷궁을, 북채로 채궁을 함께 친다.
쿵	◯	손으로 뒷궁을 친다.
덕	|	북채로 채궁의 가운데를 치거나 북채로 북 테 자리의 소점 또는 매화점을 친다.

▲ 소리북 연주법



▲ 소리북 구조

2. 사설 지도

사설이 잘 전달되려면 입을 크게 벌려 큰소리로 정확하게 발음하며 읽어야 한다. 악곡의 말붙임새를 정간보로 나타내어 장단에 맞추어서 사설을 크고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사설]	흑	공	단	망	건		흑	공	단	갓	끈	
[발음]	흑	공	다안	망	거	언	흑	공	단	가	끄	은

3. 선율 지도

(1) 발성 지도

판소리에서 사용되는 발성에는 크게 육성(통성 또는 겉목)과 속목 두 가지가 있는데, 육성은 대체로 낮은음에서 사용하고 속목은 대체로 높은음에서 사용한다. 주로 쓰이는 육성 발성을 본격적인 가락 지도에 들어가기 전에 연습해 보는 것이 좋다.

예 멀리 있는 사람을 "○○야~"라고 불러 보고,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지 살펴본 후 이를 적용하여 소리 낸다.

(2) 음계와 가락선 지도

판소리의 음계는 대부분 육자배기토리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다. 육자배기토리의 떠는목, 꺾는목에 해당하는 음을 익힘으로써 선율에 익숙하게 한다. 이를 교사가 손시김으로 표현하고 학생들은 이를 보고 부를 수 있도록 한다.

용어	설명	시김새	손시김
떠는목	떠는소리		
꺾는목	제 음보다 높은 소리를 낸 뒤 재빨리 제 음으로 꺾어 내리는 소리		

아니리

아니리는 판소리의 사설을 선율이 아닌 말로써 나타내는 부분으로 내용을 실감나게 전달하기 위해 연기하듯이 말하여야 한다. 크고 정확하게 표현하여 사설의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발림

발림은 내용 전달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소리꾼이 하는 몸짓, 손동작, 표정 등을 모두 이르는 것으로 적절한 곳에 부채와 양손, 온몸 등을 사용하여 나타낸다. 소리꾼이 드는 부채는 편지 읽는 대목에서는 '편지'를 대신하고, 박 타는 대목에서는 '톱'의 역할을 한다. 또한 흥겨운 느낌이 고조될 때는 폈다가 고조된 정서가 하강할 때 다시 접기도 한다. 부채의 사용법에 대한 고정된 틀은 없으며, 상황에 따라 소리꾼이 즉흥적으로 접었다 폈다 한다. 학생들이 판소리를 듣고 장단의 빠르기나 선율, 노랫말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판소리 공연 자료를 보면서 소리꾼의 움직임을 흉내 내어 보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인 지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추임새

추임새는 소리꾼이 아닌 고수나 청중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판의 중간에 '으이', '얼씨구', '좋다', '그렇지' 등의 감탄사로 흥을 돋우어 주는 것이다. 이 추임새는 소리꾼이 힘이 빠졌을 때는 힘을 주고, 강약을 보좌하며 소리의 공간을 메워 주는 역할 등을 하면서 모두가 함께하는 소리판이 완성된다. 그러나 추임새는 아무 데서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흐름 안에서 적절한 시점에 들어가야 하므로 교육을 통한 학습이 필요하다.

추임새는 대개 사설이 단락을 이루거나 대구를 이룰 때, 인과 관계가 되는 경우 마지막 장단 등에 넣는다. 또한 소리(사설)가 끝나는 곳, 즉 공박(쉬는 부분)에 위치하며, 사설의 붙임새와 장단의 관계에서 정점을 이루는 부분이나 정점의 앞박에 넣는다. 이 밖에도 사설의 내용이 강조되는 곳이나 시점과 장소, 인물이 바뀌는 곳 등 적절한 곳에서 출현한다. 학생들에게 지도하기에 가장 기본적인 추임새의 예로는 사설과 장단의 빠르기를 감지하여 장단 마지막 박의 사설이 비어 있는 경우 음악적 흐름 안에서 넣는 것이다. 추임새를 넣을 때는 학생들에게 단전에 힘을 주고 배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발성으로 크게 소리 내게 한다.

흑	공		단	-으	로	수	-건	을	들		고
어		떤			가	내	맵	시	*(좋*		*다)*

▲ 추임새 넣기 예

출처 윤원아, '판소리 지도 방안 연구('비단타령' 중 흑공단 부분을 중심으로)', 국악교육연구 제2권 제1호, 2008.

참고 자료

음악 관련 직업

단원명	1. 마음을 열며	교과서	24~25쪽
제재명	꿈을 찾는 음악	지도서	62~63쪽

1. 음악 치료사

음악으로 사람의 신체와 정신을 치료하며, 음악을 통해 환자의 진단 결과를 정리하여 보호자에게 전달하며 환자의 특성에 따라 음악적 치료 방법을 제시한다. 환자와 음악을 듣거나 악기를 함께 연주하고 작곡하면서 환자의 음악적 표현을 이끌어 내고 심리 상태의 긍정적 변화를 도모한다.

2. 음악 평론가

연주회, 음악 공연, 음반, 뮤지컬 등에 참석하거나 TV 음악 방송,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을 시청·청취 후 이에 대한 감상이나 비평을 작성한다. 음악 작품의 주제, 표현, 기술 등의 요인을 분석한 후 개인적 지식과 판단, 경험을 근거로 작품에 대한 평론을 작성하여 신문이나 전문 잡지에 기재 또는 방송 인터뷰 등에 응한다.

3. 음향 엔지니어

영화나 드라마상에 존재하는 소리가 영상에 더 잘 어울리도록 음향 장비를 조작하는 일을 담당한다. 음향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음향 공학 등에서 기초 음향학, 방송 음향 레코딩, 소음 분석 및 제어 등의 교육을 받거나 교육 기관에서도 훈련을 받을 수 있고, 무대 예술 전문인이라는 자격증을 취득 후 활동하기도 한다.

4. 음악 방송 프로듀서

음악 방송 프로듀서는 라디오 또는 TV 음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한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에 적당한 방송 작가와 제작진, 출연자를 섭외한다. 완성된 대본을 평가하고 공연 순서를 정하며 의상, 무대 배경, 음악, 카메라 작업, 시간 배정 등을 결정하기 위해 제작진과 협의하여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조정한다.

5. 음반 기획 · 제작자

음반 시장의 상황과 음반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를 분석하여 출시할 음반의 주제와 내용을 기획하는 일을 담당한다. 음반 기획자가 되기 위한 학력 또는 특별한 전공, 자격증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음악 관련 학과에서 음악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거나 음반사의 기획, 마케팅 업무 분야로 진출하여 경험을 쌓은 후 활동한다.

6. 공연 기획자

공연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작품 선정부터 홍보 및 마케팅까지 일련의 과정을 기획한다.

7. 녹음 기술자

방송국이나 녹음 스튜디오 등에서 음반에 들어갈 다양한 음원들을 조절하여 하나의 음악 및 음반으로 완성시키는 작업을 담당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한국직업사전